

서평

오오타케 스스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성립문제의 연구 - 『대승기신론』은 한문 불교문헌으로 만든 패치워크』

[大竹晉, 『大乘起信論成立問題の研究 -
『大乘起信論』は漢文佛教文獻からのパッチワーク』,
國書刊行會, 2017]

이상민

고려대학교 철학과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T.22, no.1666, 이하 “『기신론』”)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중요 성과는 별개로 『기신론』은 찬술지역이나 찬술자, 찬술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성립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모치즈키 신크(望月信亨, 1869-1948)가 『기신론』의 중국 찬술설을 주장한 이래, 한 세기 동안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설들이 등장하였다. 20세기 말부터는 다케무라 마키오(竹村牧男),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 등에 의해 점차 중국 찬술설, 그중에서도 북지(北地)에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대두되었으나 이러한 견해 또한 다시 초기 지론중 찬술설, 혹은 중국으로 건너온 인도인 찬술설 등으로 세분되며 여전히 완전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케무라의 제자이기도 한 불전번역가(佛典翻譯家) 오오타케 스스무(大竹晉)가 『기신론』 성립문제의 “최종해결”(p.17)에 도달하였다

고 선언하였다. 오오타케는 츠쿠바(筑波)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특정 학교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소위 ‘재야 학자’이지만 한문불전 뿐 아니라 인도와 티벳의 불교문헌을 넘나드는 풍부한 지식과 정합적인 논증,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새로운 관점으로 항상 주류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다. 본서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오오타케는 서론에서 “『대승기신론』이 인도찬술인지 아닌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당론의 한어(漢語) - 남북조시대 북조의 한역에 준거한 한어 - 하나하나가 어떠한 범어(梵語)에 대응하는지를 북조의 한역과 그에 대응하는 범본 및 티벳역에 의거해 확인한 다음, 동론(同論)의 내용이 인도불교의 문맥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논해야만 한다. 그와 같은 문헌학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이는 본래 중국불교와 인도불교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에 『대승기신론』의 성립문제에 참가할 자격을 결여하고 있다”(p.5)고 선언한 후, 그가 제시한 것과 같이 엄밀한 문헌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기신론』이 6세기 초중엽 북지에서 찬술된 문헌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본서는 크게 “자료편”과 “연구편”의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 제1장에서는 기존에 주로 활용되던 고려장본이나 이에 입각한 대정장본 『기신론』이 후대에 가필이 포함된 본임을 지적하고, 돈황사본 『기신론』 13점을 검토하여 이 중 선별된 9점을 통해 고형(古形) 『기신론』의 구문을 복원하고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제1부 제2장은 본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서의 부제인 “『대승기신론』은 한문 불교문헌으로 만든 패치워크”는 바로 본 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오오타케는 『기신론』의 전문을 구문 단위로 완전히 해체하여 각 구문에 대응하는 경론들을 제시하고, 다시 이렇게 제시된 경론들을 토대로 『기신론』을 번역한다. 예를 들어 『기신론』의 대표적 교설 중 하나인 삼대(三大) 중 체대(體大)의 구문 “一者體大。謂一切法眞如平等不增減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 경론을 소개한다.(pp 87-88, 지면의 문제로 번역은 생략)

- ① 보리유지(菩提流支, ?-508-535-?)의 강의록 『금강선론(金剛仙論)』 “一者體大, 明大乘之體苞含萬德出生五乘因果, 故名體大也.”(T25, 2: 805a3-4),
- ② 보리유지 역 『불설법집경(佛說法集經)』 “見過去未來諸法眞如平等.”(T17, 4: 633b7-8) 및 그에 대응하는 티벳역 “das pa dang ma 'ongs pa dang da ltar byung ba de bzhin nyid du mnyam par mthong ba”(P no.904, Wu 633b)
- ③ 同 『금강선론』 “此明佛與衆生法身平等無有增減亦無高下, 故離眞如法身無別衆生可度.”(T25, 9: 861b11-13)

이와 같이 본 장은 『기신론』 전체에 대해 대응 구문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번역에 있어서, 본서는 한문의 어법에 충실한 번역이라기보다는 상응 개소의 범어적 특징을 고려한 번역이라는 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기신론』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相”의 접미사적 용법, 즉 『십지경론(十地經論)』에서 범어의 -tā/-tva를 “相”으로 번역하거나 특정 어구가 명사임을 표기하기 위해 문법적 기능만을 하는 “相”을 붙이는 번역용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제2부는 연구편에서는 제1부에서 정밀하게 분리된 『기신론』의 구문이 지닌 특징들을 밝히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기신론』이 북조에서 찬술된 문헌임을 논증한다.

제2부 제1장에서는 『기신론』의 소재가 된 한역경론들을 열거하고, 이들이 모두 『기신론』이 작성되었을 6세기 이전 북조에 존재하였던 한역경론, 위경, 인도인의 강의록 등임을 밝히고 있다. 이 중에는 단순히 자구의 호응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상의 상응 관계도 지적되고 있어 저자의 학술적 내공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오타케는 ① 『기신론』이 보살지(菩薩地: Bodhisattva- bhūmi)를 “경(經: 修多羅)”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살지는 인도에서 경전으로 유통된 적이 없으나, 동아시아 불교계에는 담무참(曇無讖, 385-433)에 의해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즉 경전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므로 “경전”으로 보살지의 내용을 인용한 『기신론』이 인도에서 찬술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②『기신론』의 소재 중에는 『사분율(四分律)』 및 『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이 있는데, 오오타케는 두 문헌 모두 북조에서 크게 유행하였으며, 이 또한 『기신론』의 북조 찬술설을 지지하는 간접적 증거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장에서는 『기신론』의 문체에 4자구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특히 4자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북조의 역장에 참여하였던 담림(曇林, 생몰년 미상)이 관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2부 제2장에서는 북조찬술설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신론』에 나타난 북조 특유의 교설들을 지적하고 있다. 크게는 ①오온(五蘊)을 색(色)과 심(心)으로 나누는 『기신론』의 설명이 남조에서 발생하고 북조에서 수용된 성실열반학(成實涅槃學)의 교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②무명(無明)을 심(心)과 동일시하는 북조의 교설이 『기신론』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 ③지관(止觀) 수행의 대상을 동일한 유식(唯識)-진여(眞如)로 보는 인도 유식학의 입장과는 달리 지(止)와 관(觀)의 대상을 따로 설정한다는 것 ④대승(大乘)을 체대(體大)와 상대(相大) 용대(用大)로 파악하는 것이 여타의 경론에는 나타나지 않고 S.613이나 S.4303과 같은 돈황출토 지론문헌에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하는 교학들은 남북조시대의 불교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장의 고찰을 통해 『기신론』의 중국 찬술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제3장에서는 『기신론』의 독자적인 이론 중 인도 불교의 관점에서 인정되지 않는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일체법과 진여(眞如: tathāta)의 관계 ② 의(意: manas)의 해석 ③훈습(熏習: vāsanā, “습기”)과 훈(熏: paribhāvayati/paribhāvita, “침투”)의 혼동 ④업장(業障)의 해석 ⑤아비발치(阿毘跋致)에 대한 오해 ⑥정정취(正定聚)에 대한 오해가 검토되고 있다. 본장에서는 『기신론』의 교리 이해를 해당 교리가 언급된 범본이나 티벳역 문헌과 대조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고, 『기신론』의 교리 이해가 인도 불교의 원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임을 논증하였다.

제2부 제4장은 『기신론』의 발생과 전파에 대한 짧은 고찰을 담고 있다. 오오타케에 따르면, 『기신론』에 활용된 소재, 타 문헌에서의 『기신론』 인용 등의 문헌증거로 추정하였을 때 성립 하한선은 543년경, 하한선은 574년경이 된다. 또한 『기신론』의 내용에서 지론종 특유의 교설에 입각한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그 원류라 할 수 있는 보리유지의 교설이나 북위 낙양기 불교의 교설이 주로 나타는데, 오오타케는 이에 입각하여 『기신론』의 성립연대를 독자적인 지론사상의 성립 이전, 즉 534년에서 549년 사이로까지 좁힌다. 또한 본장에서 『기신론』이 마명(馬鳴)에 가탁된 이유, 진제(眞諦) 번역으로 전승된 시기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증이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정황증거에 입각한 추론의 성격을 지닌다.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오타케는 그가 서론에서 말한 “최종해결”, 즉 『기신론』은 6세기 전반 ‘북조인’의 찬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결론은 인도인 찬술설은 물론이거니와 지론종 찬술설과도 다르지만, 본서의 고찰에서 도출되는 가장 정합적인 결론임은 분명하다. 특히 오오타케는 『기신론』의 인도인 찬술설을 적극적으로 비판한다. 이미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기신론』에 반영된 동아시아 불교 특유의 교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인 찬술설을 고집하는 것은 “한자문화권의 불교를 옹호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한자문화권의 불교를 인도불교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열등감”(p.488)의 발로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래문화인 인도 불교는 변용을 통해 비로소 한자문화권에 수용되었고, 한자문화권은 결과적으로 더욱 융성한 불교문화를 발생시켰음을 지적하며, 『기신론』이 북조인의 찬술이라는 결론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사상적 중요성이나 탁월함을 훼손시키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오오타케는 『기신론』의 성립 문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논증의 소재들을 추출해 낸다. 이러한 본서의 논의는 단순히 문헌 비교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사상적, 철학적 논의에까지 미쳐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을 “직소퍼즐”에 빗댄 것처럼,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명료하

지 않았던 자료의 조각들을 정교하게 맞춰가며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낸다. 문헌의 교정과 해체, 인용문헌의 분석, 사상적 고찰을 망라하는 본서가 현 단계 『기신론』의 성립문제에 관한 가장 진전된 연구로 평가받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본서의 치밀한 고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연구나 보완이 요청되는 부분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서 오오타케는 『기신론』에 나타나는 ‘두 층위의 마음’이라는 해석을 보리유지의 교설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pp.409-413), 사실 이러한 심식설은 이미 남조에서 고안된 신불멸론(神不滅論)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신불멸론이 반영되어 있는 남조 교학은 낙양시대에 이미 북조에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리유지 이전부터 구축되어 온 남북조 불교사상이 『기신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대(三大)의 성립과정에 관해서는 저자 자신도 명확하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p.443) 남북조 교학과 『기신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제2부 제3장에서 『기신론』의 유식학과 인도 유식학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애초에 보리유지가 인도 유식학의 주류설과 다른 형태의 유식학을 전래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단순히 『기신론』의 오해인지, 아니면 보리유지의 독특한 유식설을 수용한 결과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신론』에 마명(馬鳴)이 가탁된 이유, 진제 주변에서 현존 최초의 주석서가 성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기신론』의 유통사에 대한 보다 정밀한 해석은 새로운 자료의 발견 이후에나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본서가 도달한 “최종해결”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기신론』이 북조에서 찬술되었다는 결론은 본서의 고찰을 통해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졌으며, 평가가 제기한 질문들 또한 본서의 고찰 결과에 입각해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격적인 논증을 담고 있는 제2부 뿐 아니라 『기신론』 전체 문구를 해체하여 여러 경론들과 대응시키는 제1부 또한 학술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후 『기신론』 뿐 아니라 남북조 불교, 동아시아 유식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참조해야 할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